마가렛 대처의 파워 드레싱 연구: 패션 스타일링을 중심으로

이미숙 · 강유희*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the Power Dressing of Margaret Thatcher: Focus on Fashion Styling

Lee Misuk · Kang Yooh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data for the power dressing of female politicians when analyzing the fashion styling of Margaret Thatcher. The method is based on considering Margaret Thatcher's life and political career, together with the power dressing of politicians from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advanced research and internet. In addition, 133 clothing photos of Margaret Thatcher's costumes are collected from the internet and several web-sites. The fashion styling being displayed from 4 May 1979 to 28 November 1990 are classified with the 1st term, 2nd term, 3rd term depending on the prime minister. We then analyze items, colors, patterns and fashion accessories. And also observe the power dressing through Thatcher's fashion styl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Margaret Thatcher expresses authority through blue clothes which symbolizes conservatism at conservative parties, black clothes at formal parties, two or three piece of various colors at international conferences. She also has simple and impressive styles emphasizing accessories such as ribbons or pearls necklaces and earrings, brooches, and handbags. Margaret Thatcher fulfills the styling power dressing of a strong and feminine figure by using items symbolizing authority as a powerful woman.

Corresponding author: Kang Yoohee, Tel.+82-62-530-0371, Fax.+82-62-530-1349
E-mail: uhistyle@naver.com

Key words : fashion politics(패션 폴리틱스), fashion styling(패션 스타일링), image(이미지), Margaret Thatcher(마가렛 대처), power dressing(파워 드레싱)

1. 서론

패션은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언어이고, 취향을 드러내는 기호이다. 주도적인 문화세력으로 자리 잡은 패션은 때로는 정치를 하고, 때로는 경제를 움직이기도 한다. 이성보다는 감성이 지배하는 시대, 웅대한 서사보다는 순간적인 영상과 이미지가 좌우하는 시대에 패션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더욱 강력한 매체가 되었다(Dongmi Park, 2013). 미디어 이론가이자 문화비평가인 마셜 맥루한(Marshall McLuhan)이 정치는 결국 이미지로 대체될 것이고, 정치가는 그들이 한 어떠한 행동과 말보다 이미지가 훨씬 더 강력한 역할을 할 것(Young, 2011)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현대 정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미디어 매체를 통한 이미지 정치에 대한 논의로, 이는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요소인 패션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즉 정치인들은 이미지를 중요한 정치적 자산으로 여기며 스타일을 통해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비언어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M. Kim, 2012).

정치인들이 미디어를 이용해서 이미지 전략을 시도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 미국의 제 35대 대통령 선거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와 리처드 닉슨(Richard Milhous Nixon)이었는데, 케네디는 네 차례의 TV 토론으로 결정적 영향을 미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케네디는 TV 매체에 대한 이미지 파워를 인식하고 영상 속에 투영된 자신의 모습이 매력적이고 다이내믹하게 비치도록 외적 이미지 연출에 노력을 기울인 반면, 닉슨은 외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쇼맨십보다는 정치적 능력을 중시하였다고 한다. 이는 닉슨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1960년 TV토론은 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에만 관심을 쏟고 외양을 무시하였다고 언급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으로, 이미지 파워를 등한시한 것이 선거 패배의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M. Lee, 2012).

이와 같이 대중의 지지가 곧 생명인 정치인에게 스타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Jeon, 2008). 노르웨이 하원 의원인 마리안 아센(Marianne Aasen)이 여성은 정치인으로 선출되면 갑자기 슈퍼모델처럼 옷 입는 것이 당연시되고 그녀가 입은 옷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한 것처럼, 여성 정치인은 남성 정치인보다 외모와 스타일로 더 판단되는 경향이 있다. ‘파워 드레싱(Power Dressing)’의 저자 롱 영(Young, 2011) 또한 패션이 정치적 잣대로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도,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옷을 입는 방식은 여성 정치인들이 해야 하는 많은 결정 중의 하나로, 여성 정치인의 패션은 남성 정치인의 패션 스타일보다 미묘하게 감정을 전달하는 힘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 정치인들은 적절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표출하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풍부하고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성 정치인들에게 패션은 더 이상 단순히 멋을 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메시지나 상징을 전달하는가 하면, 때로는 리더십 발휘나 협상력 강화 수단으로, 때로는 국민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You, 2013).

이러한 의미에서 파워 드레싱은 정치적 성격을 나타내는 완벽한 은유라고 할 수 있다. 패션을 통해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파워 드레싱은 여성이 제도에 저항하는 가장 일반적이면서 명백한 방법이다. 정치인에게 파워 드레싱은 패션을 통해 권력을 보여주고, 호감과 신뢰감을 주며, 정치적 메시지와 신념을 표출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파워 드레싱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정치인으로는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 전 영국 총리를 들 수 있다. 마가렛 대처가 2013년 4월 8일 8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면서 대처의 정치와 패션 스타일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그녀는 화려한 정치 이력만큼이나 패션 아이콘으로서도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대처는 영국의 첫 여성 총리이자,

총리를 3번이나 역임하면서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발휘한 정치가로, 그녀의 파워 드레싱은 여성들의 정치적·전문적 지위를 고양시키는 대표적인 본보기가 되고 있다(Young, 2011). 대처가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잘 차려입는 것이 국가가 자신에게 부여한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대처는 패션을 정치의 영역으로 승화시켰다(Hyunjin Kim & Kwon, 2013)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마가렛 대처의 파워 드레싱이 이슈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마가렛 대처에 대한 연구는 정치학 측면에서의 연구만 이루어졌을 뿐, 패션을 다룬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마가렛 대처의 패션 스타일링 고찰을 통해 파워 드레싱을 분석해 봄으로써 여성 정치인의 파워 드레싱 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은 국내·외 문헌 및 선행연구와 인터넷 등을 통해 마가렛 대처의 생애와 정치 이력, 파워 드레싱과 여성 정치인 등에 대해 살펴 본 다음, 대처가 총리직을 수행했던 1979년 5월 4일부터 1990년 11월 28일까지 착용했던 의상을 인터넷과 공식 웹사이트에서 수집해서 총리 임기에 따라 1기, 2기, 3기로 분류하고, 아이템, 색채, 문양, 액세서리 및 패션소품 등을 중심으로 패션 스타일링을 고찰한 다음, 대처의 파워 드레싱 전략을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마가렛 대처의 생애와 정치 이력

마가렛 대처는 1925년 10월 13일에 잉글랜드 그랜섬(Grantham)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알프레드 로버츠(Alfred Roberts)는 처음에 식료품점을 운영했지만, 마가렛이 두 살 때 시의원에 당선되었고, 시의 여러 직책을 거쳐 그녀가 대학에 다닐 즈음에는 그랜섬 시 시장에 취임했다. 알프레드는 처음에 마가렛에게 정치활동의 가벼운 일을 시켰지만, 시장 후보로 나섰을 때에는 마가렛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았으며, 정치문제에 대해 딸과 토론하거나 다른 후보의 장단점에 대해 조언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보수경향의 ‘정치적 인간’이 된 마가렛은 1943년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하면서 옥스퍼드 보수협회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하여 협회 회장이 되었다. 당시 옥스퍼드에는 상류층 자제들이 대부분으로, 중류 출신의 마가렛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부와 명예, 독실한 신앙, 가족과 전통에 대한 애착, 미국의 신보수주의 정치인들이 대부분 공유했던 특성과 신념을 지녔고, 그 가치를 위해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당당히 맞섰다(Y. Park, 2012)고 한다.

1948년에 대학을 졸업한 마가렛은 크리스레니트 플라스틱 회사 부속기관 연구원으로 취직했고, 그 해에 영국 보수당 연차대회에 참석했으며, 1950년에는 여성 후보 중 전국 최연소인 26세의 나이로, 보수당의 유일한 여성 후보로 다투포드 시 총선에 출마하였다. 비록 선거에서는 졌지만, 그 당시 만난 10살 연상의 사업가 데니스 대처(Denis Thatcher)와 1951년 12월에 결혼함으로써 마가렛 대처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녀는 정계에 있으면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쌍둥이 엄마로서의 역할도 병행하였다. 1959년 35세의 대처는 북 런던 핀츨리 선거구에서 지역구로 출마하여 하원의원에 당선되었다. 정치인으로서 대처는 필요한 말만 하고, 과학도답게 연설에서 반드시 통계수치와 계량적 지표 등을 제시해 신뢰감을 높였으며, 여성이면서도 당차고, 열정적이고, 강철 같은 의지를 드러내면서 두각을 나타내어 의원이 된 지 2년 만에 차관 제의를 받았다. 이러한 제의는 바로 보수당 정권이 와해되면서 무산되었지만, 1965년에 다시 에드워드 히스의 보수당 정권이 들어서자 1965년에 주택장관과 연금장관, 1966년에 재무장관, 1967년에 에너지장관, 1968년에 교육장관, 교통장관, 1970년에 다시 교육장관을 지내는 등 화려한 공직 이력을 쌓게 되었다(Ham, 2012).

1974년 에드워드 히스가 이끄는 보수당이 총선에서 패배하여 그녀는 내각에서 물러났으나, 야당이 된 보수당의 당권에 도전하여 1975년 당수가 되는 데 성공하였다. 1979년 노동당의 켈러한 내각이 의회에서 불신임을 당하고 해산된 직후,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이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55세에 유럽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었고, 유럽 국가들 중 최초로

민선 여성 최고통치자가 되었다. 집권 후 긴축재정을 실시하여 영국의 경제부흥을 이룩하였고, 1982년의 포클랜드 전쟁에서도 뛰어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였다. 1983년과 1987년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보수당이 승리, 3기를 연임함으로써 영국 사상 최장기 집권의 총리가 되었다. 그 후 과감한 사유화와 노조의 와해, 교육·의료 등 공공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국고지원 삭감 등 획기적인 정책 추진과 독단적인 정부운영 등으로 ‘철의 여인’이라 불리게 되었다(“Margaret Thatcher”, 2013). 그러나 1990년 유럽 통합 반대 입장을 고수하다가 당 지도부의 반발을 사게 되어 자진 사임하였고, 1991년 5월 정계를 은퇴하였다. 총리 퇴임 후 상원의원으로 돌아왔지만, 1992년 총선에 불출마함으로써 모든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그 해에 왕실로부터 비세습 남작 작위를 받았다. 그 후 여러 나라를 다니며 강연을 하거나 필립 모리스 사의 경영고문과 미국 윌리엄 메리 대학교의 총장을 지내는 등 정치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다 2002년 뇌졸중 후유증을 겪고, 2003년에는 남편을 잃었으며, 2013년 4월 8일 87살의 나이로 타계했다.

대처는 초대 수상 로버트 월폴부터 데이비드 캐머런까지 290여 년 동안에 배출된 56명의 수상 가운데 ‘주의(ism)’가 붙는 유일한 수상으로 그녀의 통치 철학은 ‘대처리즘(Thatcherism)’으로 명명되었다. 대처리즘은 1980년대부터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이 시장경제를 옹호하게 만드는 데에도 기여했다(Dongwoon Park, 2007)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파워 드레싱과 여성 정치인

파워 드레싱이란 위엄이나 지성, 힘을 느끼게 하는 옷차림(“Power dressing”, 1997)이란 뜻으로, 지위와 영향력을 나타내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는 옷을 입는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상의 드레스 코드이다(Won, 2006). 파워 드레싱은 1980년대에 패션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되었지만, 몰리(J. T. Molly)가 이미 자

신의 저서 ‘Dress for Success(1975)’에서 패션이 개인적인 삶과 비즈니스 성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파워 드레싱은 1985년부터 주요 미디어에서 어깨 패드를 이용해 어깨를 강조한 정장으로 묘사되면서 전문직 여성들이 주로 착용하는 의상을 가리키게 되었고, 1988년에 개봉된 영화 ‘워킹 걸(Working Girl)’의 시고니 위버(Sigourney Weaver) 캐릭터 의상이 또 하나의 파워 드레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예로 제시되었다. 이와 같이 파워 드레싱은 강렬하고 매력적이면서 동시에 여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거나 조화롭게 하는 옷차림으로 남성이 지배하고 있는 정치와 비즈니스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전략이었다(Young, 2011).

여성 정치인의 파워 드레싱 또한 지난 30여 년 동안 수많은 변화 속에서 새로운 의미가 도입되고 있다. 여성 정치인의 파워 드레싱의 시작은 마가렛 대처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영국 총리들 가운데 가장 열심히 일한 총리, 가장 옷을 잘 입은 총리, 가장 용감한 총리로 평가받고 있는 마가렛 대처의 정치적 파워 역시 파워 드레싱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처가 패션을 사랑하는 정치인으로 여성 정치인록의 전형을 보여준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처음부터 베스트 드레서였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 총리 당선 직후 대처는 동네 아줌마 스타일의 패션 때문에 의회에서 빈축을 샀지만 변신을 꾀하면서 그녀만의 스타일을 구축함으로써 보수당 당수로서의 권위를 세우며 보수층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마가렛 대처는 새벽에 일을 할 때도 옷을 잘 차려입었고, 1984년에 아일랜드 공화국군이 호텔을 폭격했을 때 호위를 받으며 잔해 현장을 나오는 순간에도 다음 날에 갈아입을 옷을 가지러 갈 만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차림새를 한 것으로 유명하였다(Young, 2011). 마가렛 대처의 완벽하게 다듬어진 헤어스타일과 정갈한 의상은 형클어진 머리에 모자를 쓴 페미니스트들과 평화주의 시위자들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다(Jihyang Park, 2012).

또 다른 여성 정치인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은 본래 패션 정치에 능한 편이 아니었다.

영부인 시절 셀러브리티 스타일 아이템을 활용하기도 하였지만, 다소 촌스러운 옷차림에 머리띠를 즐기고 헤어스타일을 자주 바꿔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힐러리는 미국의 영부인으로서 입었던 분홍 드레스를 검정 슈트와 셔츠 스타일로 바꾸는 파워 드레싱 전략을 보여주었다. 즉, 뉴욕 상원의원을 거쳐 민주당 경선을 치르고,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장관이 되면서 그녀는 영부인 시절의 여성스러운 스타일의 단발머리 대신 짧은 컷머리로 변화를 주었는데, 힐러리의 쇼트 컷은 그녀의 과감한 패션과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그녀는 원색의 팬츠 슈트에 알이 굵은 진주 목걸이 또는 컬러풀한 브로치를 매치함으로써 슈트와 쇼트 컷이라는 힐러리만의 패션공식을 완성했다. 대중들은 그녀의 스타일이 남성적이거나 유행이 지났다고 생각했고, 다른 패션을 시도하면 위스트 드레서로 등장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모습을 찾고자 노력함으로써 그녀만의 특별한 팬츠 슈트 차림으로 특유의 카리스마를 형성해 가고 있다(Young, 2011).

독일 최초 여성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또한 색을 잘 매치하지 못한 루즈한 나팔바지와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재킷으로 ‘패션 테러리스트’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패션 센스에 대한 여론의 책망에도 끝까지 동요하지 않은, 그녀의 성격을 정확하게 반영한 메르켈의 이미지는 독일 정치계에서 중요시 여기는 일관성과 신중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어 그녀만의 정치적 자산이 되었다(Young, 2011).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언제나 3~5버튼 재킷과 팬츠를 착용하지만 재킷의 색상은 9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온화한 메시지를 주고 싶을 때는 녹색, 지도력을 강조할 때는 검은색, 경축 행사에 참석할 때는 빨간색 재킷을 주로 입는다(Cheon, 2013).

‘브로치 외교(brooch diplomacy)’로 유명한 미국 전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Madeleine Albright)는 외교석상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담은 브로치를 통해 좋은 외교적 성과를 보이며 긍정적 이미지 효과를 창출한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다. 올브라이트가 소장한 브로치는 200여개에 이르며 상황에 따라 메

시지가 담긴 브로치를 착용함으로써 정치적 함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였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라크 언론의 폭평이 있던 다음 날에는 뱀 모양의 브로치를, 야당인 공화당 의원을 설득할 때에는 국회의사당 브로치를, 미국의 힘을 상징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독수리 모양이나 성조기 모양, 하드파워를 보여줘야 할 때에는 독침을 가진 별 모양, 김대중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그의 햇볕정책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햇살 모양, 외교협상이 실패처럼 얽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는 거미줄 모양, 중동을 방문할 때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모양, 러시아와 미사일 감축 협상을 할 때에는 로켓 모양의 브로치를 함으로써 그녀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Albright, 2009).

가장 아름다운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율리아 티모셴코(Yulia Tymoshenko)의 파워 드레싱 키 아이템은 우크라이나 전통방식으로 뿔은 헤어스타일로, 그녀가 패션을 정치적인 목적에 맞춰 능숙하게 활용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녔던 티모셴코는 정치에 입문한 후, 자신의 머리를 밝은 금발로 염색하고 우크라이나 전통방식의 세 가닥으로 뿔은 머리와 함께 파스텔 색상의 옷을 착용함으로써 친절한 교사 이미지(Heewon Park, 2012)를 만들어 패션을 통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였다고 한다. 그녀의 패션 스타일은 초기에는 포멀하고 어두운 색의 정장 슈트로 전문성을 나타냈지만, 섬세한 디테일과 몸매의 곡선이 드러나는 밀착형 원피스, 하이힐과 파스텔 톤의 의상으로 점차 여성성을 활용하였다. 때로는 백색 의상의 착용과 진주의 활용으로 청렴성의 이미지를 강조하였고, 우크라이나 전통 헤어스타일과 의상, 전통문양의 브로치, 혁명을 뜻하는 오렌지 색상의 의상과 스카프의 사용으로 나타난 민족성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즐겨 활용한 패션 스타일로(Yang & Cho, 2011) 파워 드레싱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성 정치인들의 파워 드레싱은 정치적 파워와 직결되므로 품위와 위엄이 있고, 대중에게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트렌드에 맞는 옷차림이어야 자신만의 이미지와 지위에 맞는 파워 드레싱이 될 수 있다.

III. 마가렛 대처의 패션 스타일링 분석

1. 분석 대상 및 방법

마가렛 대처의 패션 스타일링을 연구하기 위한 분석대상은 대처가 총리직에 있었던 1979년 5월 4일부터 1990년 11월 28일까지 착용한 의상을 인터넷 사이트(www.google.com, www.margarettatcher.org, www.gettyimages.com, www.telegraph.co.uk, www.friendsreunited.co.uk, www.corbisimages.com)에서 추출한 총 431장의 이미지 사진 중 동일한 의상을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 흑백 사진, 하의 패션이 추정 불가능한 사진, 색채를 잘 알아볼 수 없는 사진을 제외한, 총 133개의 사진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때 아이템이나 문양, 액세서리의 상태와 색상의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여러 장을 분석하여 명확성을 높였다.

분석 방법은 먼저 마가렛 대처의 총리직 임기에 따라 1기(1979.5.4~1983.6.8), 2기(1983.6.9~1987.6.10), 3기(1987.6.11~1990.11.28)로 분류하여 아이템, 색채, 문양, 액세서리 및 패션소품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항목은 패션문헌(Hyewon Park, Lee, Yeom, Choi, & Park, 2006) 및 선행연구(Je & Lee, 2009; Y. Kim & Lee, 2004; M. Lee, 2012; S. Lee & Song, 2000; Shim, 2004)를 참고하여 아이템 구성, 색채, 문양, 액세서리 및 패션소품 등으로 분류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아이템 분석은 원피스(One Piece), 투피스(Two Piece), 스리피스(Three Piece)로 분류하였고, 색채 분석은 먼저 의상에 활용된 컬러의 비율에 따라 메인 컬러(50%이상)와 서브 컬러(10%이상 50%미만), 액센트 컬러(10%미만)로 분류해서 총 297개의 색채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 이를 디지털 이미지에서 Adobe photoshop CS2의 eyedropper tool을 이용하여 컬러 칩과 RGB값을 추출하고, 각 컬러칩의 RGB값은 Munsell Conversion(version 9.1.1)으로 HV/C 값으로 변환하여 먼셀 색체계의 10색상(R, YR, Y, GY, G, BG, B, PB, P, RP)과 W, Gy, Bk로 분류해서 분석하였다. 문양 분석은 문양의 유무에 따라 무문과 유문으로 분류하고, 유문은 자연문, 기하학문(스트라이프, 체크, 도트, 스케

어, 하트), 추상문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액세서리 및 패션소품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브로치, 코르사주, 핸드백, 장갑, 모자 등으로 분류하였다.

분석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책임자를 비롯한 4명의 패션디자이너 전문가가 참여해서 분석유목 및 방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분석기준표에 의해 코딩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18.0 for window를 사용해서 각 항목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2. 분석 결과 및 논의

1) 아이템

마가렛 대처가 착용한 의상의 아이템 구성은 스리피스(39.8%)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투피스(31.6%), 원피스(28.6%) 순이었다. 스리피스는 주로 탑+스커트+재킷의 구성이 대부분이었지만 스커트+재킷+망토의 구성도 있었으며, 투피스는 스커트+재킷과 원피스+재킷의 구성이 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이 아이템 구성에서 팬츠 대신 스커트의 구성이 대부분이었던 것은 대처가 팬츠를 싫어했고(No, 2013), 평소 즐겨 입었던 블라우스와 스커트 차림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던(Jiae Park, 2013)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임기에 따른 아이템 구성은 Table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기에서는 원피스(53.1%)를 가장 많이 착용하였고, 스리피스(34.4%), 투피스(12.5%)의 순이었으며, 2기에서는 원피스(46.5%), 스리피스(39.5%), 투피스(14.0%) 순으로, 3기에서는 투피스(55.2%), 스리피스(43.1%), 원피스(1.7%) 순으로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피스의 착용률이 3기에 비해 1기와 2기에서 매우 높았는데, 이에 대해 Young (2011)은 마가렛 대처가 초기 정당 적수들과 대적할 때 프린트된 얇은 드레스나 비칠 듯이 얇은 이브닝 웨어는 싫었지만 그 이상의 역할을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투피스와 스리피스의 착용률이 1기에서 3기로 갈수록 높아진 것은 대처가 회의나 연설을 할 때에 전문적인 인

Table 1. Composition of The Items according to the Terms

frequency(%)

	One Piece	Two Piece	Three Piece	Total
First Term (1979-1983)	17(53.1)	4(12.5)	11(34.4)	32(100)
Second Term (1983-1987)	20(46.5)	6(14.0)	17(39.5)	43(100)
Third Term (1987-1990)	1(1.7)	32(55.2)	25(43.1)	58(100)
Total	38(28.6)	42(31.6)	53(39.8)	133(100)

Table 2. The Color Distributions

frequency(%)

Hue	Chromatic color(170/57.2)										Neutral Color(127/42.8)			Total
	R	YR	Y	GY	G	BG	B	PB	P	RP	W	Gy	Bk	
Main	9(3.0)	7(2.4)		2(0.7)	3(1.0)	5(1.7)	3(1.0)	41(13.8)	4(1.3)	6(2.0)	6(2.0)	9(3.0)	38(12.8)	133(44.8)
Sub	8(2.7)	2(0.7)	2(0.7)	2(0.7)	2(0.7)		2(0.7)	2(0.7)	2(0.7)	2(0.7)	13(4.4)	2(0.7)	7(2.4)	46(15.5)
Accent	12(4.0)	12(4.0)	6(2.0)		7(2.4)	1(0.3)	1(0.3)	14(4.7)	5(1.7)	8(2.7)	39(13.1)	1(0.3)	12(4.0)	118(39.7)
Total	29(9.8)	21(7.1)	8(2.7)	4(1.3)	12(4.0)	6(2.0)	6(2.0)	57(19.2)	11(3.5)	16(5.1)	58(19.5)	12(4.0)	57(19.2)	297(100)

상을 줄 수 있는 투피스와 스리피스의 정형화된 슈트의 착용을 통해 권위적이고 신뢰적인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전략을 선택했다고 판단된다. 대처는 만찬이나 파티에서도 투피스를 주로 착용하였는데, 회의나 연설 등의 자리에서는 무릎길이의 스커트를 착용했다면, 만찬이나 파티에서는 발까지 덮는 스커트나 드레스 위에 재킷을 입어 파티에 어울리면서도 보수당 당수로서의 권위를 세우며 보수층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했다(Jeon, 2008). 이러한 연구결과는 때와 장소, 그리고 트렌드에 맞는 옷차림으로 패션을 정치의 영역으로 승화시켰다(Hyunjin Kim & Kwon, 2013)는 지적과 일치한다.

2) 색채

마가렛 대처가 착용한 총 133벌에서 추출한 297개의 색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채색이 57.2%, 무채색이 42.8%로 나타났다. 유채색에서는 PB계열이 19.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R계열(9.8%)이 많이 나타났으며, 무채색에서는 W가 19.5%, 그 다음으로 Bk가 19.2%로 가장 많이 나타

났다(Table 2). 메인 컬러에서는 PB계열(13.8%)과 Bk(12.8%), 서브 컬러에서는 W(4.4%), 액센트 컬러에서는 W(13.1%)가 많이 나타났다.

위와 같이 마가렛 대처는 PB 색상이 메인 컬러인 의상을 많이 착용하였는데, 이는 대처가 의회 연설을 할 때나 보수당 회의가 있을 때 보수당을 상징하는 블루 컬러를 착용함으로써 보수주의자였던 자신의 신념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블루는 보수적 경향, 성취, 헌신, 신중한 성향을 나타내는 색이고(Birren, 2005), 주의, 주장이 한결같은 강한 의지의 소유자 혹은 충성심이 강한 사람을 의미(21 Seiki Kenkyuukai, 2006)하기 때문에 마가렛 대처를 상징하는 적절한 색이었다.

또한, 마가렛 대처는 메인 컬러로 Bk도 많이 사용하였는데, 주로 파티나 국제회의, 해외 방문 등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 Han and Jung(2011)의 연구에서 검은색은 자기 방어와 지적 능력 등을 상징하여 권위와 엄숙, 절제의 의미를 갖고 있어 격식을 갖추는 자리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검은색은 부와 권력, 위엄, 품위, 존엄, 고급스러움, 우아함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Oh, 2004).

또한,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그 국가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순간에 검은색을 패션으로 수용하였으며, 검은색 의상은 권위, 위엄, 우아, 세련미, 겸소, 금욕, 남성성, 관습적이고 수수한 특성을 전달한다(Moon & Kim, 1998). 2011년에 개봉된 영화 ‘철의 여인(The Iron Lady)’에서도 마가렛 대처 역의 메릴 스트립이 소셜 웨어로 블랙 롱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데, 이에 대해 필리다 로이드 감독은 유럽 정상회의 파티에 참석한 장면에서 우아함이 더욱 빛나는 블랙 롱 드레스를 착용하여,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그녀의 파워풀한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였다(Sun, 2012). 이와 같이 마가렛 대처는 Bk의 메인 컬러 의상을 격식을 차려야 하는 파티나 국제회의, 해외 방문 할 때 착용함으로써 그녀의 위엄과 권위를 드러내었던 것 같다.

임기에 따른 색채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기에서는 유채색이 59.7%, 무채색이 40.3%로 나타났다. 1기 의상에서는 PB계열이 23.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W(19.4%)와 Bk(16.1%)가 많았다. 메인 컬러로는 PB계열(19.4%)과 Bk(16.1%), 서브 컬러로는 W(4.8%), 액센트 컬러로는 W(12.9%), R계열(6.5%)이 많이 활용되었다.

2기에 착용했던 의상에 나타난 색채 분포는 Table 4와 같이 유채색이 65.8%, 무채색이 34.2%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Bk가 17.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W(15.4%)와 PB계열(13.7%), R계열(11.1%)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메인 컬러로는 Bk(13.7%)와 PB계열(7.7%), 서브 컬러로는 W(6.0%), R계열(3.4%), 액센트 컬러로는 W(9.4%), YR계열(7.7%)이 많이 활용되었다. 마가렛 대처는 주로 파란색 의상을 착용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2기의 분석 결과 PB계열보다 Bk 의상을 더 많이 착용한 것으로 대처가 언제나 파란색 의상을 가장 많이 착용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마가렛 대처가 파티나 해외 방문, 국제회의 등에서는 Bk 의상을 주로 입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3기에 착용했던 의상에 나타난 색채 분포는 Table 5와 같이 무채색이 51.7%, 유채색이 48.3%로 나타났다. 3기 의상에서는 W가 2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PB계열과 Bk가 22.0%로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메인 컬러는 PB계열(16.9%)과 서브 컬러는 Bk(5.1%), 액센트 컬러는 W(16.9%)가 많이 활용되었다.

Table 3. Costume Colors of the 1st Term

frequency(%)

Hue	Chromatic color(37/59.7)										Neutral Color(25/40.3)			Total
	R	YR	Y	GY	G	BG	B	PB	P	RP	W	Gy	Bk	
Main	3(4.8)	1(1.6)		1(1.6)			1(1.6)	12(19.4)		1(1.6)	1(1.6)	2(3.2)	10(16.1)	32(51.6)
Sub	1(1.6)			1(1.6)			1(1.6)				3(4.8)	1(1.6)		7(10.8)
Accent	4(6.5)	3(4.8)	2(3.2)					3(4.8)		3(4.8)	8(12.9)			23(37.1)
Total	8(12.9)	4(6.5)	2(3.2)	2(3.2)			2(3.2)	15(24.2)		4(6.5)	12(19.4)	3(4.8)	10(16.1)	62(100)

Table 4. Costume Colors of the 2nd Term

frequency(%)

Hue	Chromatic color(77/65.8)										Neutral Color(40/34.2)			Total
	R	YR	Y	GY	G	BG	B	PB	P	RP	W	Gy	Bk	
Main	4(3.4)	4(3.4)			1(0.9)	1(0.9)	1(0.9)	9(7.7)	3(2.6)	3(2.6)		1(0.9)	16(13.7)	43(36.8)
Sub	4(3.4)	1(0.9)	1(0.9)	1(0.9)	2(1.7)		1(0.9)	1(0.9)	2(1.7)	2(1.7)	7(6.0)		1(0.9)	23(19.7)
Accent	5(4.3)	9(7.7)	4(3.4)		3(2.6)	1(0.9)		6(5.1)	4(3.4)	4(3.4)	11(9.4)	1(0.9)	3(2.6)	51(43.6)
Total	13(11.1)	14(12.0)	5(4.3)	1(0.9)	6(5.1)	2(1.7)	2(1.7)	16(13.7)	9(7.7)	9(7.7)	18(15.4)	2(1.7)	24(17.1)	117(100)

Table 5. Costume Colors of the 3rd Term

frequency(%)

Hue	Chromatic color(57/48.3)										Neutral Color(61/51.7)			Total
	R	YR	Y	GY	G	BG	B	PB	P	RP	W	Gy	Bk	
Main	2(1.7)	2(1.7)		1(0.8)	2(1.7)	4(3.4)	1(0.8)	20(16.9)	1(0.8)	2(1.7)	5(4.2)	6(5.1)	12(10.2)	58(49.2)
Sub	3(2.5)	1(0.8)	1(0.8)					1(0.8)			3(2.5)	1(0.8)	6(5.1)	16(13.6)
Accent	4(3.4)				4(3.4)		1(0.8)	5(4.2)	1(0.8)	1(0.8)	20(16.9)		8(6.8)	44(37.3)
Total	9(7.6)	3(2.5)	1(0.8)	1(0.8)	6(5.1)	4(3.4)	2(1.7)	26(22.0)	2(1.7)	3(2.5)	28(23.7)	7(5.9)	26(22.0)	118(100)

Table 6. Patterns according to the Term

frequency(%)

	Plain Pattern (150/53.4)	Pattern(131/46.6)							Total
		Natural Pattern (Plant)	Geometric pattern					Abstract pattern	
			Stripe	Check	Dot	Square	Heart		
First Term (1979–1983)	33(56.9)	3(5.2)	1(1.7)	12(20.7)	3(5.2)	1(1.7)		5(8.6)	58(100)
Second Term (1983–1987)	40(48.2)	11(13.3)	2(2.4)	9(10.8)	6(7.2)	4(4.8)		11(13.3)	83(100)
Third Term (1987–1990)	77(55.0)	14(10.0)	15(10.7)	16(11.4)	3(2.1)	10(7.1)	4(2.9)	1(0.7)	140(100)
Total	150(53.4)	28(10.0)	18(6.4)	37(13.2)	12(4.3)	15(5.3)	4(1.4)	17(6.0)	281(100)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마가렛 대처의 의상에 사용된 메인 컬러는 PB계열과 Bk가 가장 많았다. 임기에 따라서는 1기는 PB계열, 2기는 Bk, 3기는 PB계열의 의상을 가장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PB계열과 Bk 모두 마가렛 대처에게 있어 권력과 상관있는 색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기에서 3기로 갈수록 메인 컬러에서 다양한 색상의 의상을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R계열은 1기에서 3기로 갈수록 착용 빈도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빨간색이 영국에서 노동당을 상징하는 색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마가렛 대처가 1990년 11월 28일 반대 세력과의 갈등으로 총리직을 사임하고 다우닝가를 떠날 때는 붉은 색 슈트를 착용했다. 이에 대해 에드워나 커리 전 의원은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대처가 총리직을 사임하면서 마지막으로 착용한 붉은색 슈트는 저항의 뜻으로, 나는 영광의 불꽃 속으로 걸어 나간다. 나를 배신한 당신들은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You, 2013).

3) 문양

문양은 무문(53.4%)이 유문(46.6%)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유문에서는 체크 문양(13.2%)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식물문(10.0%), 스트라이프(6.4%), 추상문(6.0%), 스퀘어(5.3%), 도트(4.3%), 하트(1.4%) 순으로 나타났다.

임기에 따른 문양의 특성은 Table 6과 같다. 즉 1기에서는 무문(56.9%), 체크(20.7%), 추상문(8.6%), 식물/도트(5.2%), 스트라이프/스퀘어(1.7%)의 순으로 나타났고, 2기에서는 무문(48.2%), 식물문/추상문(13.3%), 체크(10.8%), 도트 (7.2%), 스퀘어(4.8%), 스트라이프(2.4%), 3기에서는 무문(55.0%), 체크(11.4%), 스트라이프(10.7%), 식물(10.0%), 스퀘어(7.1%), 하트(2.9%), 도트(2.1%), 추상(0.7%) 순이었다. 1기부터 3기까지 마가렛 대처의 의상은 무문이 유문보다 많았고, 유문 중에서는 체크와 식물문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유문 중에서 체크 문양

Table 7. Fashion Accessories according to the Term

frequency(%)

	Necklace	Earrings	Bracelet	Brooch	Corsage	Handbag	Gloves	Hat
First Term (1979-1983)	25(78.1)	32(100)	9(25.0)	12(37.5)	1(3.1)	12(37.5)	5(15.6)	1(3.1)
Second Term (1983-1987)	30(69.8)	43(100)	15(34.9)	23(51.2)		21(48.8)	4(9.3)	
Third Term (1987-1990)	52(89.7)	58(100)	45(77.6)	40(69.0)		31(53.4)	5(8.6)	1(1.7)
Total	107(80.5)	133(100)	68(51.1)	74(55.6)	1(0.8)	64(48.1)	14(10.5)	2(1.5)

이 많이 나온 결과는 블루 컬러나 모노톤, 혹은 체크 문양의 테일러드 슈트를 즐겨 착용했다는 Young(2011)의 말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The Daily Telegraph의 패션 디렉터인 Hilary(2008)에 의하면 마가렛 대처는 언제나 드레스보다는 고급 영국산 체크 트위드나 브로케이드의 테일러드 슈트를 선호했는데, 이는 유문 중에서 체크 문양과 함께 식물문이 많이 나온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문이 다른 문양보다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마가렛 대처의 파워 드레싱 전략이 문양보다는 색상 선택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액세서리와 패션소품

패션 스타일링에 사용된 액세서리와 패션소품을 살펴본 결과, 총 133벌의 의상 모두에서 귀걸이를 착용하였고, 목걸이는 80.5%, 브로치는 55.6%, 팔찌는 51.1%, 핸드백은 48.1%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가렛 대처는 특히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를 자주 착용했는데, 이는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이미지의 전형으로 신뢰와 경솔하지 않은 그녀의 언행을 대변하는 아이템으로 대처의 메시지를 담은 것(Jiae Park, 2013)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기에 따른 액세서리와 패션소품은 Table 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기부터 3기까지 모두 귀걸이를 착용하였고, 그 다음 많이 착용한 소품은 1기에서는 목걸이(78.1%), 브로치/핸드백(37.5%), 팔찌(25.0%), 장갑(15.6%), 코르사주/모자(3.1%), 2기에서는 목걸이(69.8%), 브로치(51.2%), 핸드백(48.8%), 팔찌(34.9%), 장갑(9.3%), 3기에서는 목걸이(89.7%),

팔찌(77.6%), 브로치(69.0%), 핸드백(53.4%), 장갑(8.6%), 모자(1.7%)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처가 착용한 액세서리 및 패션소품은 1기에서 3기로 갈수록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브로치와 핸드백의 활용 빈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IV. 마가렛 대처의 패션 스타일링에 나타난 파워 드레싱

본 장에서는 이러한 마가렛 대처의 패션 스타일링에 나타난 파워 드레싱을 블루 슈트, 핸드백, 그리고 리본,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 브로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보수당과 신중함의 상징: 블루

색은 강력한 시각적 자극과 심리적 연상 작용을 거쳐 정당 또는 정치인의 이미지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Jooyeon Park, 2009). 색이라는 것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다양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 색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할 때는 항상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와 대중이 해당 색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철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M. Lee, 2012). 이러한 색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마가렛 대처는 색의 상징성과 이미지를 적절히 활용하여 블루를 자신의 시그니처 색상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블루는 보수당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성취, 헌신, 신중한 성향을 나타내는 색이고, 주의, 주장이 한결같은 강한 의지의

소유자 혹은 충성심이 강한 사람을 의미하는 색이기 때문에 정치인 마가렛 대처를 대표하는데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었다.

특히 마가렛 대처는 영국 왕실의 상징인 ‘로열 블루’ 컬러의 스커트 정장을 즐겨 착용하였다. Figure 1은 1979년 최초의 여성 총리로 총리공관에 들어설 때 선보인 로열 블루 컬러의 주름 스커트 정장으로, 대처의 이미지를 강력한 여성 정치인으로 이미지메이킹하는데 기여한 대표적인 패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다. Figure 2는 1987년 아쿠아스큐텀이 디자인한 로열 블루 컬러의 슈트를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으로, 대처는 신문이나 홍보용 매체 사진을 찍을 때(Figure 3)도 블루 컬러의 슈트를 착용해서 강력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갔다. 특히, 대처는 보수당 행사에서는 보수주의를 상징하는 푸른색 의상을 입고 지도자의 위상을 과시했는데 인상적인 의상과 부풀린 머리 스타일은 대처의 권력이 최고에 달했을 때 그녀가 선택한 스타일(Jihyang Park, 2012)로, 대처가 보수당 회의에서 블루 컬러의 슈트를 입고 연설을 하는 모습(Figure 4)을 많이 찾아 볼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대처는 블루 컬러라는 단순하지만 강한 이미지를 창출하는 의상 착용을 통해서 강력하면서도 여성적인 정치인으로 비치는 데

성공했다.

2. 핸드배깅(handbagging)

대처의 이미지를 구성한 또 하나의 무기는 핸드백이었다. 그녀의 핸드백은 처칠의 시가나 월슨의 파이프처럼 이미지의 중요한 부분이었다(Jihyang Park, 2012). 대처는 핸드백을 자신의 카리스마를 발산하는 데 활용했다. 당시의 시사 풍자가들이 대처가 각료들을 핸드백으로 때리는 모습을 자주 그릴 정도(Hyunsoo Kim & Kim, 2013)로 대처는 딱딱한 사각형 형태의 핸드백을 책상에 올려놓음으로써 좌중을 긴장시켰다고 한다. 즉 대처는 1984년 유럽경제공동체(EEC) 회담에서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세게 놓으며 협상을 벌였는데, 립스틱과 연설 큐 카드가 들어있는 페라가모(Ferragamo) 핸드백은 후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대처의 개인 비서이자 스타일 조연자인 크로포드가 “우리는 항상 6개 이상의 가방을 가지고 다닌다. 이 가방들은 세계 치기에 좋다”고 한 말은 대처의 핸드백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Young, 2011)고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핸드백으로 파워를 휘두른다’, ‘공격적이다’, ‘자기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다’,

Figure 1.
Thatcher in
Blue
Suit(1979)
- www.getty
images.com

Figure 2.
Thatcher in Blue Suit
designed for Her by
Aquascutum(1987)
- www.getty
images.com

Figure 3.
Thatcher in Blue Suit
(1988)
- www.corbisimages
.com

Figure 4.
Thatcher in Blue Suit at the
Conservative Party (1989, 1990,
1989, 1987)
- www.google.com
- www.friendsreunited.co.uk

Figure 5.
Thatcher
Walking with
Reagan(1981)
- www.margaret
thatcher.org

Figure 6.
Left: Asprey Handbag,
right: MT Visiting Washington
(1985)
- www.google.com
- www.margaretthatcher.org

Figure 7.
Launer Handbag
Left: Bellini, Right: Adagio
- www.google.com

Figure 8.
The Maggie
Range
- www.google.com

‘공격적으로 몰아붙이는 수완’, ‘여성의원들의 직설적인 공격’을 일컫는 ‘핸드배깅’(“Handbagging”, 2012)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까지 했다.

Figure 5는 1981년 백악관 방문 시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미국 전 대통령을 만나고 있는 대처의 모습으로, 그녀는 사각형 모양의 검은색 핸드백을 들고 있다. Figure 6은 1985년 2월 20일에 대처가 워싱턴에 방문하여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 만난 모습으로, 대처가 들고 있는 핸드백은 재임 기간에 특히 애용한 아스프레이(Asprey) 핸드백이다. 아스프레이 핸드백은 1979년부터 재임 시절에 다른 나라와의 정상회담 등 중요한 행사 때마다 들고 다녔고, 2011년 6월 27일에 런던 자선 경매에서 약 4300만원에 낙찰되었다. 또한, 대처는 ‘라우너(Launer)’의 ‘벨리니’, ‘아다지오’ 모델(Figure 7)을 특히 좋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마가렛 대처의 서거 이후에 핸드백 매출이 53% 올랐다고 한다(Kang, 2013). 라우너 측은 대처를 위해 토트백(Figure 8)을 만들어 한정판으로 판매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마가렛 대처는 핸드백을 통해 여성 정치인으로서 우아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나타내는 한편,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여성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3. 여성성의 상징: 리본, 진주 목걸이, 브로치

프랑스의 프랑수아 미테랑(Francois Mitterrand) 대통령은 마가렛 대처에 대해 칼리굴라(Caligula)의 눈과 마릴린 먼로의 입술을 가졌다고 평했다. 칼리굴라가 남성적 정치 지도자를 대표한다면 마릴린 먼로는 여성성의 상징이다. 사실 대처가 남긴 이미지는 여성도 남성도 아닌, 일종의 양성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대처는 자기 사생활의 전통적인 면을 강조했지만, 공적 행적에서는 점점 성의 구분을 초월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노동당 부대표였던 데니스 힐리(Denis Healey)는 대처를 ‘제트 엔진을 단 플로렌스 나이트게일’이라고 표현했다. 이와 함께 ‘철의 여인’, ‘싸우는 매기’와 같은 대처에 관한 모든 이미지들은 공통적으로 강력한 성적 양면성을 나타낸다. 무엇보다도 힘을 정치가의 중요한 덕목으로 인식했던 대처는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를 자기 안에서 화합시켰던 것이다. 여류 작가 비어트릭스 캠벨이 여성성은 대처가 입고 있는 것이고 남성성은 그녀가 숭배하는 것이며, 대처는 남성들이 하는 것을 하는 여성이 되고 싶어한다(Jihyang Park, 2012)고 했지만, 대처의 패션 스타일링에는 양성적 이미지가 공존하고 있었다. 즉 남성적 이미지는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블루 컬러의 슈트를 통해서 나타난다면, 여성적 이미지는 리본과 진주, 브로치에서 찾을 수 있다.

마가렛 대처가 누구보다 여성 정치인에게 외모가

Figure 9.
Thatcher in Ribbon One Piece
at Economic Summit
Meeting(1982)
- www.corbisimages.com

Figure 10.
Thatcher Addressing
the Conservative
Party
Conference(1980)
- www.google.com

Figure 11.
Thatcher with British
Fashion Designer
Zandra Rhodes(1984)
- www.google.com

Figure 12.
Thatcher with
Denis(1988)
- www.getty
images.com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패션을 충분히 활용했다. 즉 대처는 여성성이 강조되는 리본 블라우스나 원피스를 자주 착용하였는데, 그녀는 리본을 부드러워 보이면서 여성적이라고 생각했다. Figure 9는 1982년 6월 1일 프랑스에서 열린 G7 경제성장 회담에 참석한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 프랑수와 미테랑 프랑스 전 대통령, 헬무트 슈미트 독일 전 총리의 모습으로, 그녀는 리본이 달린 원피스를 착용함으로써 남성 대통령들 사이에서 여성성을 더욱 강조한 스타일링을 하였다. Figure 10은 보수당 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대처의 모습으로, 블루 슈트에 리본 블라우스를 착용해서 남성적이면서도 여성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Figure 11은 1984년 3월에 다우닝 가 10번지에서 만난 대처와 패션 디자이너 잔드라 로즈(Zandra Rhodes)의 모습으로, 대처는 블랙 슈트에 블랙 스퀘어 문양이 들어간 화이트 색상의 리본 블라우스를 착용하였다. 대처는 영국의 경기 침체 이후 빠르게 경제 부흥을 일으킨 패션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패션 위크에 참여한 디자이너들을 위한 리셉션을 개최하는 등, 패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Figure 12는 1988년 크리스마스 카드를 위해 남편 데니스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는 대처의 모습으로, 그린색의 슈트에 리본 블라우스를 매치한 의상을 착용하고 있다.

그리고 마가렛 대처의 패션 스타일링에서 여성성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아이템은 진주 목걸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주의 작가인 저메인 그리어(Germaine Greer)가 ‘모조나 양식 진주처럼 값이 저렴해도 상관없다. 파워드레서라면 크고 풍요롭고 광채가 나면서 일렬로 품격 있게 꿰진 진주 목걸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대처는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를 즐겨 착용하였다. 그녀의 일생을 조명한 영국 BBC 방송의 <마가렛 대처의 공적, 사적 면모>에서 대처는 ‘줄 길이를 짧거나 길게 해 변화를 준다’며 ‘특히 진주 귀걸이는 은은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처는 늘 단정한 맞춤 정장의 왼쪽 옷깃에 우아한 브로치를 달았다. 그녀의 브로치는 튀지 않는 색상으로 슈트와 다른 액세서리와의 조화를 이루었고, 전통적이거나 원형, 꽃과 나비 등의 디자인으로 여성성을 가미하였다. 이처럼 대처가 브로치를 여성 정치인의 이미지 전략을 위해서 활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현재 우아함과 고급스러운 기품을 나타내는 브로치는 여성 정치인룩의 키 아이템이 되고 있다.

Figure 13은 마가렛 대처가 1982년 6월 23일 워싱턴 D.C.에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으로, PB계열 리본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 그리고 꽃 모양의 브로치를 하여 여성

Figure 13.
Ronald Reagan and Margaret
Thatcher Speaking to
Reporters(1982)
- www.corbisimages.com

Figure 14.
MT in 10 Downing
Street(1980)
- www.corbisimages.com

Figure 15.
Thatcher Speaking at
Normandy(1987)
- www.corbisimages.com

Figure 16.
Margaret Thatcher
at Press
Conference(1989)
- www.corbisimages.com

성을 부각시켰다. Figure 14는 대처가 다우닝 가 10번지에서 PB계열 리본 원피스에 2줄의 길게 늘어진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Figure 15는 1987년 3월 23일 노르망디에서 열린 핵 군비 통제 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Bk 의상에 리본 블라우스와 2줄의 진주 목걸이, 귀걸이, 그리고 원형의 브로치를 하여 강인함과 우아함을 보여주었다. Figure 16은 1989년 11월 24일 워싱턴 D.C.에서 부시 대통령과 만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체크 문양의 재킷에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 브로치를 코디하여 강력한 남성성과 여성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마가렛 대처는 리본 블라우스와 함께 진주 목걸이의 줄 길이와 귀걸이 사이즈, 그리고 브로치의 형태에 변화를 주면서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했고, 특히 여성성을 부각시키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 결 론

이미지가 좌우하는 시대에 정치인에게 패션이란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이자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수단이다. 특히, 여성 정치인은 남성 정치인보

다 패션 스타일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고, 이미지를 얻게 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마가렛 대처의 패션은 많은 여성 정치인에게 파워 드레싱으로써의 영감과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마가렛 대처의 파워 드레싱을 패션 스타일링을 통해 살펴보았다.

첫째, 마가렛 대처의 패션 스타일링을 살펴본 결과, 아이템 구성은 스리피스가 가장 많았고, 주로 탑+스커트+재킷의 구성이었다. 1기와 2기에서는 원피스와 스리피스, 3기에서는 투피스와 스리피스를 가장 많이 착용하였다. 색채는 유채색이 무채색보다 더 많이 나타났고, 유채색에서는 PB, R계열이, 무채색에서는 W와 Bk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메인 컬러로는 PB계열, 서브 컬러와 액센트 컬러로는 W가 많이 활용되었다. 1기에서는 메인 컬러로 PB계열, 서브 컬러와 액센트 컬러로 W가 많이 활용되었다. 2기에서는 메인 컬러로 Bk, 서브 컬러와 액센트 컬러로 W가 많이 나타났고, 3기에서는 메인 컬러로 PB계열, 서브 컬러로 Bk, 액센트 컬러로 W가 많이 착용되었다. 문양은 무문이 유문보다 더 많이 나타났고, 유문에서는 체크 문양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1기에서는 무문, 체크, 2기에서는 무문, 식물문과 추상문, 3기에서는 무문과 체크 문양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액세서리와 패션소품은 귀걸이는 항상 착용하였고, 그 다음은 목걸이, 브로치, 팔찌, 핸드백

순으로 나타났다. 1기부터 3기까지 항상 귀걸이를 착용했고, 1기에서는 목걸이, 브로치와 핸드백이, 2기에서는 목걸이, 핸드백, 3기에서는 목걸이와 팔찌가 가장 많이 착용되었다.

둘째, 마가렛 대처의 패션 스타일링에 나타난 파워 드레싱을 분석한 결과, 마가렛 대처의 파워 드레싱은 블루 슈트와 핸드백, 리본,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 그리고 브로치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보수당을 상징하는 로열 블루 컬러의 슈트를 보수당 회의나 연설, 대중 매체에서 즐겨 착용함으로써 지도자로서의 위상과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힘을 과시하였고, ‘핸드백킹’이란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페라가모, 아스프레이, 라우너 등 다양한 브랜드의 핸드백을 들고 다니면서 협상 시에 활용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리본과 진주 목걸이, 브로치는 마가렛 대처의 여성성을 보여준 패션 아이템으로, 리본은 블라우스와 원피스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고, 1기와 2기에서 많이 착용하였으며, 국제회의에서 주로 원피스를 입어 자신이 여성인 점을 드러냈다. 또한, 대처는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를 즐겨 착용하였는데, 다양한 사이즈의 귀걸이와 목걸이의 줄 길이 변화로 다양한 이미지를 주었고, 전통적이거나 원형, 꽃과 나비 등의 디자인으로 된 브로치를 활용해서 여성성을 부각시켰다.

이상의 연구 결과, 마가렛 대처의 패션 스타일링은 1기에서 3기로 갈수록 파워우먼으로서의 권력을 상징하는 아이템을 주로 사용하여 강력하면서도 여성적인 인물로 비치는 파워 드레싱의 스타일링을 완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마가렛 대처는 단순하면서도 인상적인 패션 스타일링으로 자신의 이미지와 소속 정당, 그리고 정치 이념을 전달하는 자신만의 파워 드레싱을 완성하였다.

본 연구는 마가렛 대처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수집하였기 때문에 실제 의상 색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대처의 재임 기간이 11년인데 비해 사진이 적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여성 정치인의 파워 드레싱에 대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여성 정치인 뿐 만 아니라 국내외 정치인의 패션을 비교·분석하여 정치인의 파워 드레싱 및 패션 폴리틱스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References

- 21 Seiki Kenkyuukai. (2006). *Reading Cultural history of color over night*. (R. Jung, Trans). Seoul: Yedam. (Original work published 2003).
- Albright, M. (2009). *Read My Pins: Stories from a Diplomat's Jewel Box*. NY: Harper Melcher Media.
- Birren, F. (2005). *Color & human response* (7th ed.). (J. Kim, Trans.). Seoul: Sigongart. (Original work published 1984).
- Cheon, Y. (2013, April 12). The world was tense to appearance of Iron lady with angular handbag. *Herald*. Retrieved from <http://news.heraldcorp.com>
- Ham, K. (2012, March 14). Margaret Thatcher. *Navercast*. Retrieved from <http://navercast.naver.com>
- Han, J., & Jung, S. (2011). A study on the colors worn by Michelle Obama: from a fashion political viewpoi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1(1), 89-102.
- Handbagging. (2012, February 23). *Naver opendictionary*. Retrieved from <http://kin.naver.com>
- Hilary, A. (2008, April 16). The woman who pioneered power-dressing. *The Daily Telegraph*. Retrieved from <http://fashion.telegraph.co.uk>
- Je, K., & Lee, K. (2009). Fashion coordination of black color in fashion collection: Focused on 2005~2007 colle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3(7), 1003-1013
- Jeon, S. (2008, December 2). Cover-fashion, Dress up power: Obama's victory is style's

- victory. *Hankook Daily News*. Retrieved from <http://weekly.hankooki.com>
- Kang, C. (2013, April 19). Is 'Iron lady' Margaret Thatcher's the secret weapon handbag?. *SBS CNBC News*. Retrieved from <http://news.naver.com>
- Kim, H. [Hyunjin], & Kwon, K. (2013, September 7). Park Geun-hye fashion project. *DongA News*. Retrieved from <http://news.donga.com>
- Kim, H. [Hyunsoo], & Kim, H. (2013, March 7). Female leader's fashion power: say fashion of women politicians in the world. *DongA News*. Retrieved from <http://news.donga.com>
- Kim, M. (2012). The influence of popular culture in the fashion politics phenomenon of leader.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6(5), 88-105.
- Kim, Y., & Lee, K. (2004). Analysis of the men's fashion style in the fashion collecti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8(2), 270-279.
- Lee, M. (2012). A study on the fashion image of female politicians in Korea: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colors and color combination imag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18(4), 337-353.
- Lee, S., & Song, M. (2000). Study on the fashion nation of Chanel.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s*, 50(8), 129-147.
- Margaret Thatcher. (2013). doopedia. Retrieved September 21, 2013, from <http://www.doopedia.co.kr>
- Margaret Thatcher. (n.d.). corbisimages. Retrieved September 21, 2012, from www.corbisimages.com
- Margaret Thatcher. (n.d.). friendsreunited. Retrieved September 19, 2012, from www.friendsreunited.co.uk
- Margaret Thatcher. (n.d.). Retrieved September 20, 2013, from www.gettyimages.com
- Margaret Thatcher. (n.d.). google. Retrieved September 21, 2013, from www.google.com
- Margaret Thatcher. (n.d.). margarethatthatcher. Retrieved September 17, 2012, from www.margarethatthatcher.org
- Margaret Thatcher. (n.d.). telegraph. Retrieved September 25, 2012, from www.telegraph.co.uk
- Moon, H., & Kim, M. (1998). The image of black expressed in western dress: from renaissance to 19C.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s*, 41, 207-223.
- No, S. (2013, April 9). Margaret Thatcher's privacy. *Chosun News*. Retrieved from <http://blog.chosun.com>
- Oh, S. (2004). Charisma color. Retrieved from <http://terms.naver.com>
- Park, D. [Dongmi]. (2013, April 12). Politic-economics of fashion: era of fashion of great power than all that talk. *Herald News*. Retrieved from <http://news.heraldcorp.com>
- Park, D. [Dongwoon]. (2007). *Margaret Thacher*. Gyeonggi: Sallimbooks.
- Park, H. [Heewon]. (2012, July 29). Queen's fashion: female leader' success and their fashion philosophy. *Berkeley Opinion*. Retrieved from <http://berkeleyopinion.com>
- Park, H. [Hyewon], Lee, M., Yeom, H., Choi, K., & Park, S. (2006). *Contemporary fashion design*. Seoul: Kyomunsa.
- Park, J. [Jiae]. (2013, April 29). 'Iron lady' Margaret Thatcher, her fashion politics. *Fashion Magazine Snapp*. Retrieved from <http://zine.istyle24.com>
- Park, J. [Jihyang]. (2012). *Thatcher Style*. Gyeonggi: Gimmyoung.
- Park, J. [Jooyeon]. (2009, June 16). 'Kang Keum-sil's purple' is select the failed. *The Kyunghyang Daily News*. Retrieved from <http://weekly.khan.co.kr>
- Park, Y. (2012). *World's woman presidents*

- panorama*. Gyeonggi: DreambookKorea.
- Power dressing. (1997). Korea Dictionary Research Publishing. Retrieved September 21, 2012,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8313&cid=2934>
- See 'Iron lady' Margaret Thatcher's attire. (2013, April 14). *Maeil Business Newspaper*. Retrieved from <http://news.mk.co.kr>
- Shim, E. (2004). *The characteristics of color coordination in modern women's fash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Seoul, Korea.
- Sun, M. (2012, March 10). 'Iron lady' Meryl Streep, leadership fashion to lead the world. *TV Daily*. Retrieved from <http://tvdaily.mk.co.kr>
- Won, S. (2006, October 11). Era of power dressing: In the business meeting, the suit of deep blue looks good. *Naverblog*. Retrieved from <http://blog.naver.com/eiron16?Redirect=Log&logNo=30019352582>
- Yang, S., & Cho, Y. (2011). A study on the women political leaders' fashion style for role enactment: Focusing on Yulia Tymoshenko.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9(1), 104-118.
- You, I. (2013, April 26). Female leaders' attire corresponds to her political. *The Kyunghyang Daily News*. Retrieved from <http://news.khan.co.kr>
- Young, R. (2011). *Power dressing: First ladies, women politicians and Fashion*. London: Merrell.
-
- Received(November 27, 2013)
Revised(January 27, 2014)
Accepted(February 7, 2014)